

29일 100번째 공연 갖는 '첨단골 열린음악회'

동네방네 소문난 '노래 잔치'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매 주 일요일이면 음악회가 열린다. 월드컵기념탑 광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지역 가수들의 노래와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흥겨운 난장으로 지역 명물이 된 지 오래다.

지난 2004년 9월 5일, 통기타 하나 달랑 둘러맨 지역 가수 홍주연씨는 휴대용 스피커를 꺼고 노래를 불렀다. 무심히 그의 결을 지나던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박하게 첫발을 댄 '첨단골 열린음악회' (운영위원장 소정호·이하 첨단골)가 29일로 100회를 맞이했다.

첫 출발은 지금의 모습과 조금 달랐다. 첨단 지역 상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주축이 돼 음악회를 꾸렸고 약간의 상업적인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공연을 치르고 난 후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철저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꾸며보기로 한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첨단골에 '길거리 문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볼 수 있는 공간들은 의외로 많은데 활용도가 낮은 것이 문제였다. 마을길 춤추고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와 '놀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

매 주 일요일 오후 3~5시 까지 진행되는 음악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출신 가수들



매 주 일요일 오후 광주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첨단골 열린음악회'가 오는 29일 100회 공연을 맞는다.

첨단지구 거리문화 활성화 위해 2년전부터 시작 매 주 일요일 지역 가수·주민 어우러진 흥겨운 난장 광산구 문화유적 탐방,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확대

과 춤꾼들의 무대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삼고 부부 대항 게임, 댄싱 경연, 노래자랑 등 일반인 참여 코너를 운영한다.

특히 첨단 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개월 전부터는 우리 역사 알기 차원으로 '백범 노트'를 나눠주고 있으며 '사랑의 성금함'을 설치, 모금액을 독거노인

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40여 회원들이 심시일만 힘을 보태 음악회를 꾸리고 있다. 당연히 초대손님들의 개런티도 없다.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광산구청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다.

관객들의 호응도 이어져 평균 600~700명이 '일요일밤의 음악회'

를 즐긴다.

'첨단골'은 100회 이후에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문화원 등과 연계, 광산구에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산구에서 시작해 광주의 역사를 알아가는 데까지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하나 공연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29일 오후 7시~7시까지 열리는 100회 기념 행사 '희망만들기 2007 콘서트'는 다채롭게 준비했다. 정향숙·불태산 등 가수들의 무대에 이어 파과합창단 등이 공연하며 영화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이 무대 인사를 한다. 또 풋볼 퍼포먼스, 100회 기념 사진전·자료전, 주민 사진 컨테스트, 투호놀이 등 놀이마당, 풍선아트·비즈공예 등 체험마당, 간식장터도 운영한다.

음악회에서 사회를 맡는 예제하씨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공연 후 극담에 소주 한잔 하며 우리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솟는다"며 "우리 음악회가 지역 가수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행복한 문화체험이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cafe.daum.net/kjopenconcert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박한 세상, 가족이 희망이다

'가족 보듬기-Family Fun'展 5월 1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현대인들은 가족이라는 무한 애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살고 있다. 가족간 사랑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삶을 위로 받아온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은 추억으로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광주시립미술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가족 보듬기-Family Fun'전은 화가들의 시선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전시다. 5월16일까지.

김병택, 오광섭, 정선희씨는 가족간 이별로 인한 절절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아 잊었던 혈육의 정을 일깨운다. 황영성씨는 추억을 짜맞춘 듯한 화면으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본다.

일만책씨는 식구들의 행한 눈을 통해 형제들의 불안을, 김호석씨는 즐거웠던 일상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 본다. 조각가 김용우, 문기연씨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모나지 않는 원만한 조형으로 형상화, '가족이 희망이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시립미술관은 전시기간 중이로 우체통 만들기(28일 오



김호석 작 '사랑꾼'

후 3시), 초상화 그려주기(5월 5일 오후 1시), 김금옥 발리댄스팀 공연(5월5일 오후 2시30분), 애니메이션 상영(5월 5일 오후 3시),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에 담아요(5월12일 오후 2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선착순 마감. 문의 062-525-096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양화가 박동신 개인전

3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남도의 정취를 담은 시선으로 사물을 형상화해온 서양화가 박동신씨가 3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Space+Solid Passion'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사물과 배경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작업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작업 소재들이 모과, 석류, 맨드라미, 모란 등은 캔버스에 고정되지 않고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입체감으로 다가온다. 뒷받침을 자라는 향토색 짙은 꽃과 사물은 화려한 빛깔로 인해 추억과 향수를 관람객들에게 안겨준다.

열정-맨드라미, 모란 등 연작은 작가가 그동안 고집해온 작업의 모티프로 작가의 열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어휘다.



'공간-석류'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제4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남백화, 광주전남 수채화 협회, L.M.N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경숙과 함께 '문화 기차 여행'

교보문고, 5월12일 전북 정읍 동학기념관·내소사 등

작가 신경숙(사진)씨와 함께 전북 정읍으로 떠나는 '문화 기차 여행'이 5월12일 마련된다.

교보문고는 대산문화재단, 문학사랑과 함께 정읍 출신 소설가 신씨와 일반인 300여 명이 동행하는 당일 여행을 실시해 동학기념관과 명승 고찰인 내소사 관람 등 지역문화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씨는 기차 안에서 문학퀴즈, 작가



와의 대화 등을 하고 정읍에도 착해서는 고향 이야기를 들려준다. 참가비는 어른 8만3천원, 초등생 6만7천원. 참가 신청은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 /연협뉴스

광주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5월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플루트 앙상블(단장 김연주) 제 17회 정기연주회가 5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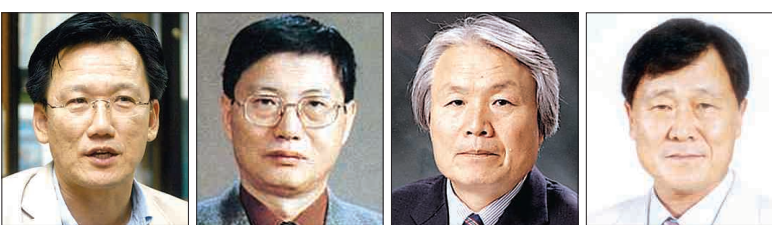
이번 공연에서는 프란츠 벤타의 '피아노와 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트리오', 콤머의 '세대의 플루트를 위한 트리오' 등을 선사하며 김종현씨가 작곡한 '5월의 가을'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은 5월 13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도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기념행사 풍물패·체험단 모집

5·18민중항쟁 27주년 기념행사 위원회는 전야제 행사에 참여할 풍물패와 체험단을 모집한다.

'5월에서 6월의 함성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야제 행사는 중고생·대학생·주부·직장인 등 1천여명이 넘는 거리구대의 길놀이패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5월17일 오후 2시부터 연습에 참여해 거리극, 거리행렬극, 풍물패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된다.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득염 교수, 전형택 교수, 박강철 교수, 백운선 교수

천득염 교수 등 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5일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문화재위원으로 천득염(전남대 건축학부), 전형택(전남대 역사교육과), 박강철(조선대 건축학부) 백운선(호남대 경찰학과) 교수를 비롯 문화재위원 120명을 위촉했다.

천득염 교수는 건축문화재분과, 전형택 교수는 사적분과에서 활동한다. 박강철 교수는 매장문화재분과·근대문화재분과, 백운선 교수는 근대문화재분과에서 일한다. 위원들이 임기는 오는 2009년 4월25일까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movie theater, featuring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Megabox movie theater, listing movies like '극락도 살인사건' and '날아라 허둥구'.

Advertisement for En Ter Cinema movie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동갑내기 과외하기' and '이장과 군수'.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movie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눈부신 날에' and '나자거북이'.

Advertisement for Mudeung Cinema movie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눈부신 날에' and '나자거북이'.